

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채권전략 안예하 yhahn@kiwoom.com



지난주 동향

지난주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 마감했다. 다만 주 초반 강세 이후 추가 강세폭이 확대되기보다는 강세폭을 소폭 되돌리기도 하는 등 차주 미국 7월 CPI 발표를 대기하는 양상을 보였다. 그 가운데 미국채 금리는 전주의 고용 보고서 이후 강세를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 구간 중심으로 상승했다. 국고 3년물은 전주 대비 6.8bp 하락한 2.407%, 국고 10년물은 6.3bp 하락한 2.772%에 거래 마감했다. 국고 3-10 스프레드는 36.5bp로 보험권 등락을 이어 나갔다.

주 초반 국내 시장은 전주의 미국채 강세를 반영하며 강세로 시작했다.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 전월치들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, 실업률도 소폭 반등하면서 민간 수요의 둔화 우려가 부각된 것이다. 여기에 미 연준 월러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설과 구글러 연준 이사 대체자로 미런 CEA 위원장 지명 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점도 단기 구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. 미 연준의 9월 인하 기대 확대와 함께 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통화 완화 정책 여력이 확대되었다는 인식 등이 시장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.

다만 미국채 금리가 재차 반등하는 등 국내 시장의 강세도 주 후반 들어서는 제약되었다. 미국채 입찰이 대부분 부진했던 가운데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이 시장 약세 요인이었다. 특히 물가 상승 압력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 또한 금리 상승 요인이었다. 미국 7월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 결과 세부 고용 지표는 부진했으나 물가지표가 상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영향이다. 여전히 물가가 제약적인 환경일 경우 미 연준 위원 변경에도 인하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시장 강세를 되돌린 것으로 판단한다. 국내 시장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무역협상 결과로 8월 통방 부담을 덜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8월 인하 기대가 축소된 점 또한 금리 하락폭이 제한된 배경이다.

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	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
국고 2년	2.348	-6.9	-9.0	-41.7	미국채 2년	3.762	8.1	-12.8	-47.9
국고 3년	2.407	-6.8	-7.0	-18.8	미국채 3년	3.731	7.6	-12.7	-54.2
국고 5년	2.553	-7.2	-7.9	-21.2	미국채 5년	3.831	7.4	-14.0	-55.1
국고 10년	2.772	-6.3	-8.0	-9.9	미국채 10년	4.283	6.7	-11.6	-28.6
국고 30년	2.697	-5.7	-5.3	-9.9	미국채 30년	4.849	2.7	-7.5	6.8

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	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
통안 91일	2.349	0.1	-2.2	-61.3	여전채 AA+	2.764	1.9	0.0	-22.6
통안채 1년	2.211	-2.9	-8.0	-48.3	여전채 AA-	2.895	1.9	-0.2	-25.4
통안채 2년	2.383	-4.2	-3.9	-36.9	회사채 AA+	2.802	0.4	-1.6	-21.5
공사채AAA	2.585	-0.1	-2.3	-13.7	회사채 AA-	2.887	0.5	-1.6	-20.4
은행채AAA	2.621	0.2	-3.9	-13.4	회사채 A+	3.295	0.6	0.1	-10.0

*통안채 제외 3년물 기준, 국고 대비 스프레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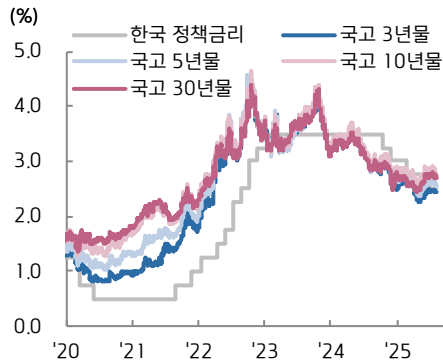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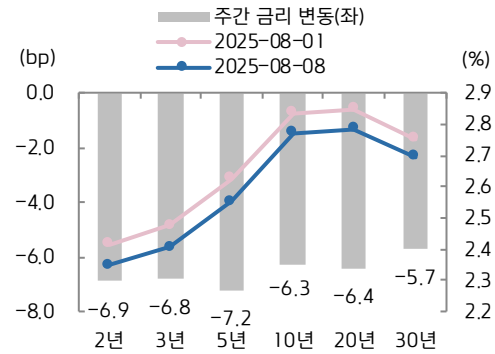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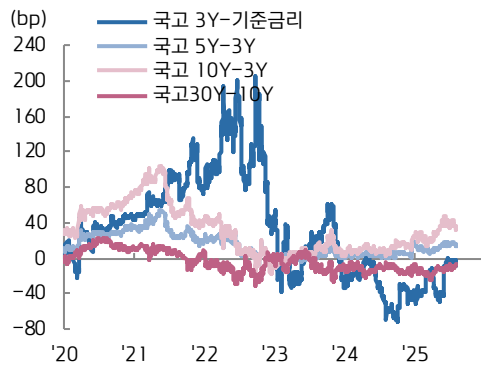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수익률 곡선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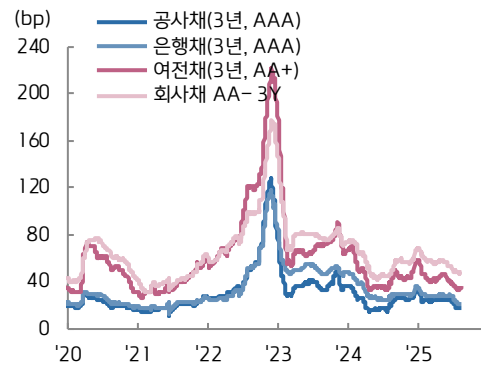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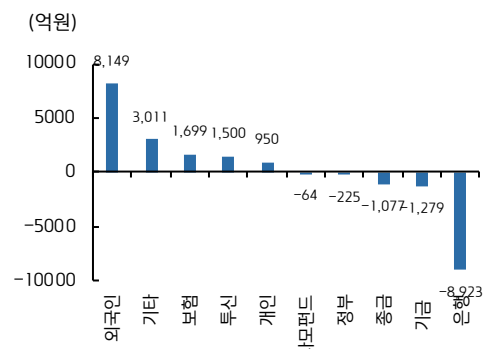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회사채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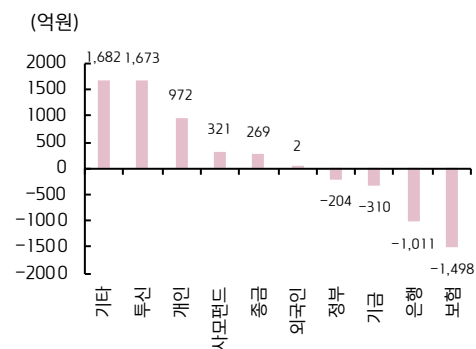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국채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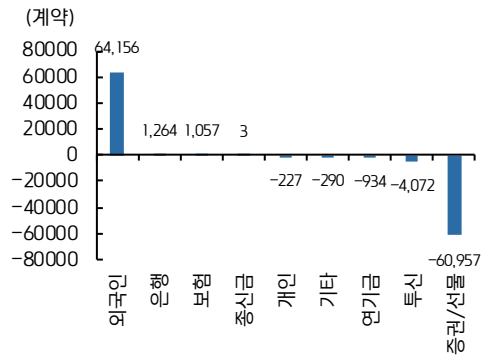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회사채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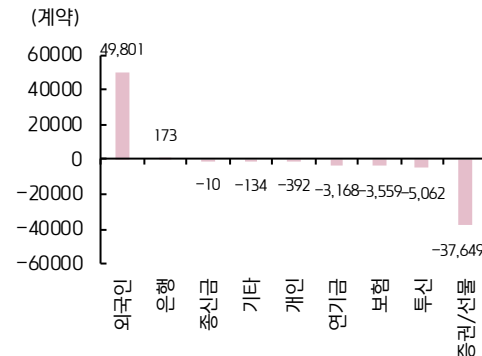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TB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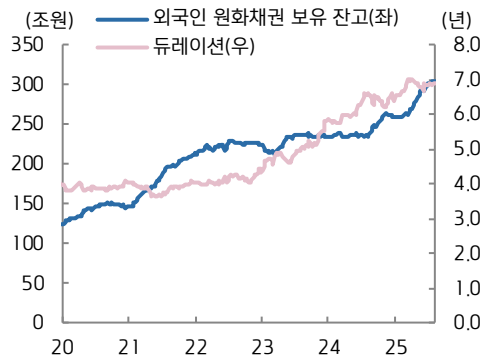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LKTb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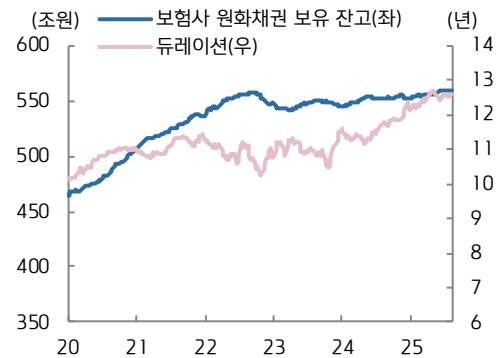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외국인 원화채권 수급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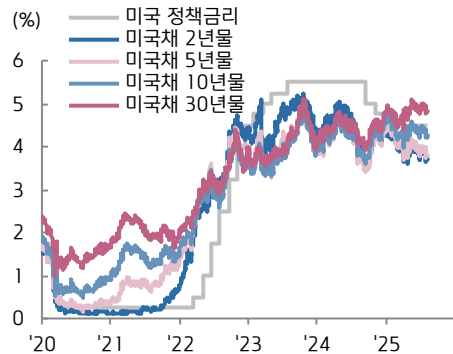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보험사 원화채권 수급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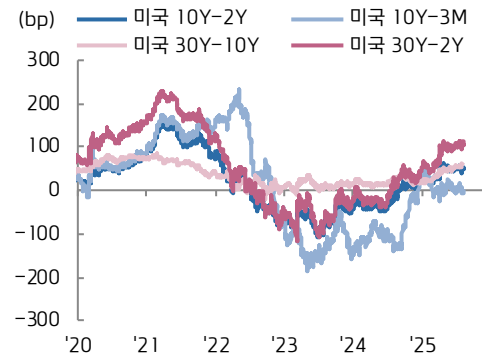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채 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